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미래창조와 판타지 산업



최동호
시인·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이대 중심축은 복지와 미래이다. 미래창조부에 대한 무게 비중이 다른 어떤 정부 조직보다 더 크고 무겁다. 과학에서도 IT산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일단 과학이 미래 국부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창조의 근원을 논하는 것은 무언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우둔함의 소치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학에 우선하는 것이 인문학이요, 문화 예술이라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그 과학을 발전시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를 향유하는 문화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과학은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과학을 위한 과학은

인간을 과학의 노예로 만드는 과학 만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시적 영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자연의 법칙을 창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과학의 발전은 시적 영감이나 통찰이 없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의 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인간의 꿈이 없었더라면 이태백의 시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는 과학적 성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이 없다면 그 과학은 무용하게 될 뿐이다.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인간이요, 그것을 향유하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 창조가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우지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배려와 예술적 창조를 중요한 가치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인문학자의

역지 하소연이 아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판타지 산업이다. 판타지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 이는 물론 디지털 코드의 시대에 탄생한 새로운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영화 산업이다. 최근 한국 영화는 관객 천 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 몇백만 정도는 예상롭다. 다시 말하면 판타지 산업이아말로 새로운 국부창출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시작한 해리포터 시리즈는 처음 소설로 출판되고,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독자와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해리 포터의 저자 로안 롤링은 1년에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이는 인세 수입만 1조 7000억 원이라고 한다. 그것을 순수익으로 본다면 한국의 한 자동차회사와 맞먹는 순수익을 창출하는 셈이다. 굉장 없는 산업이 바로 판타지 산업이며, 그 미래는 무궁하다.

‘다빈치 코드’로 정통 기독교에 도전하여 세계적인 흥행작을 만든 댄 브라운은 현재 ‘단테 코드’를 집필 중이며, 이 또한 세계적인 히트작이 되리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은 자료와 지식을 동원하여 최고의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두 사람의 천재에 의해 창조되던 소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으로 창작하여 소설이 문화산업의 형태를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국부 창출에 있어서나 미래 성장산업에 있어서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으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한국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미래 창조에 있어서의 과학의 강조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중의 하나로 판타지 산업도 삼도있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중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이룬 케이팝이나 싸이의 성공이 우연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 나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전 세계인이 호응한 것이다.

미래 창조의 키워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확실한 투자와 그 바탕이 되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세계를 무대로 살아 세계인에 통하는 판타지 문화와 예술이 한국인에 의해 문화산업으로 창출될 때 한국은 확실한 문화적 선진국이 될 것이며, 그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의료칼럼

죽다 살아난 축구선수를 보며



이준영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곧바로 뛰어가 상태를 살폈다. 심폐 소생술까지 이뤄질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었는데 한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이한샘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트레이니티팀의 발 빠른 대처에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한시를 뚫었다고 한다.

알마 전 제주 유니타이트의 신영록 선수도 시합도중 갑자기 실신해 의식불명이 됐으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다행히 회복중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좌심실이 커져 있고, 맥박도 매우 느리며, 약간의 부정맥이 보이기도 한다. 짧은 운동선수 중에서 운동도중에 생기는 심장 마비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근근이 발생한다. 원인은 유전적인 소질이 흔한 일종의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후성심근증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병은 전신에 피를 짜내는 좌심실이 비후되는 병이며, 결국 갑자기 부정맥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물론 신영록 선수가 이 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병은 심장 초음파 검

사 등 정밀 검사를 하면 발견이 가능하다.

필자가 의과대학 시절에 배운 응급의학적 지식 중에 사람의 심장이 멎었을 때 치료 원칙은 1번이 ‘ABC’라고 배웠다. A는 airway(기도확보) B는 breathing(인공호흡) 마지막으로 C는 compression(흉부압박)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양 어깨를 부여잡고 “여보세요”라고 2번 정도 부른 후 응답이 없고 경동맥의 맥이 만져지지 않으면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 달려들곤 하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응급 처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심장이 멎은 환자를 보게 되면 무조건 심장을 먼저 살리는 식으로 응급처치 체계가 바뀌어졌다. 좀더 쉽게 말하면 흔들려 깨운 후 압박이 없고 맥이 만져지지 않으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후 바로 달려들어 흉부 압박 마사지를 시도하라는 말이다. 아마도 이한샘 선수의 경우 뇌진탕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상태였을 것 같고 적절한 기도 확보와 심장마사지가 바로 선수를 회복되게

하였던 것 같다.

광주FC구단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시문 구단이지만 시즌 개막전부터 경기장에 숙련된 지식을 갖춘 전문 간호사와 의료진이 앵벌런스와 함께 경기시작 1시간 전엔 항상 그라운드에 대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인 팀 주치의가 전체 상황을 조율하도록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초동 대처와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 등 모든 부분을 시나리오화해 실제 교육에 적용했는데 의료진 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이 바로 응급 구조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바 있다.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지게 되면 30초 이내 전문의가 다가가 상황을 판단하고, 30초부터 심장 마사지 그리고 1분 이내 심장 제세동, 5분 이내의 앵벌런스 이동 후 병원 도착까지의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다.

이 같은 반복적인 응급 상황의 훈련과 의료진의 교육만이 선수의 급작스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社說

새정부 ‘문화 융성’ 광주가 출발점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현안으로 ‘문화 융성’을 꼽아 국정사업인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컬처 노믹스’와 가장 부합하는 현안이 문화재단 건립을 골자로 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천명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 육성은 오는 2015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과 직결된다. 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문화가 국력인 시대’에 걸맞고, 새정부의 문화정책이 가장 먼저 결실을 맺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질없는 개관과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문화전당 콘텐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2500억 원의 국비가 확보돼야 하고, 개관에 앞서 최소 2년 전부터 운영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은 70억 원에 불과해 채용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뿐인’ 문화수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역시 시급한 과제다. 여기에는 광주문화예술 대학 설립, 국가문화예술공원 조성, 국립 아시아미술관 설치, 국제문화예술 창작특구 조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문화콘텐츠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문화중심도시 및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문화 융성’은 광주가 출발점이 돼야만 국가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대학 총학 장악한 조폭 정계까지 넘보다니

순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10년 동안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거액의 학생회비를 빼돌려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특히, 폭력조직은 조직원들을 학생회장으로 키워 지방정계까지 넘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6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순천 중앙과 두목 등 간부급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순천 3개 대학에 조직원들을 입학시켜 최근 10년동안 18명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킨 뒤 교비와 학교 지원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학생회비와 교비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중앙과 조직원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도 2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조직원을 당선시켰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까지 진출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혹업소에 이어 상아탑마저 폭력배들이 판치면서 정계까지 넘보는 세상이 됐다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다.

문제는 대학의 일부 교직원들이 폭력조직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학생들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방관해 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피담 허러 마련한 학비가 폭력배의 새로운 자금원이 된 셈이다.

폭력조직이 그토록 오랜 기간, 그것도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대학과 도심을 활보했는데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은 수사권 다툼만 할 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성찰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당국은 순차적 폭력파의 전정을 선포하고, 소탕작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언제까지 폭력과 전횡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無等鼓

스포츠는 비교의 영역이다. 누군가와 의 우위와 열세를 가리는 것은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매스컴이나 팬들도 팀과 선수를 비교하며 자신이 응원하고 좋아하는 선수가 최고라는 데 머리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은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3월의 관란’으로 불리는 NCAA토너먼트에서 극적인 결승골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끈 뒤 NBA 진출했던 조던은 19년의 선수 생활 동안 그 어떤 농구 선수보다 많은 업적을 이뤘다. 90년대에만 3년 연속 우승을 두차례 일궈고, 데뷔 시즌과 은퇴로 농구코트를 떠났던 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올스타에 뽑혔다. NBA 역사상 가장 많은 11번의 득점왕, 커리어 평균 득점 30.12점도 역대 1위다. 또한 신인상과 정규시즌 ‘파이널·올스타전 MVP,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선수로서 탈 수 있는 상이란 상을 모두 휩쓸었다.

그래서 인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조던을 여전히 코트 위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그의 트레이니어가 “조던은 지금 현역으로 복귀해도 경기당 20점은 넣을 수 있다”고 해 농구황제의 복귀(?)라는 ‘즐거운 상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조던은 지난해 12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조던이 선수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에서 변하지 않는 실력을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컷 센터 비스마르크 비온보는 “조던은 아직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었지만 예전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잘한다”고 했다.

지난 2009년 9월 NBA 명예의 전당 입회식 때 조던은 “50살때 선수로 뛴 수도 있다. 안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나 한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슬데없는 일일 뿐이다”고 일갈했다.

조던은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사회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고의 스포츠맨으로 꼽힌다. 그래서 팬들은 영원한 농구 황제가 코트 위로 돌아와 필름 나는 ‘즐거운 상상’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기고

국민건강보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제도 개선 시급



황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임 진도 지사장

보장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등 보장을 80%를 공약하여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80%’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우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각각 다른 부분이 문제다. 직장 가입자가 실직할 경우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생활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득원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직장 생활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점점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분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보험재정 지출구조가 돈을 주는 곳과 심사하는 곳으로 나뉘어져 통제 기능의 효율성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80%’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제 각각 치료비 지급방식 등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이해타산의 갈등도 심각한 만큼 이를 통합할 방안도 시급하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부과 체계로 통일해야 하며 부족한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확보하여 불안한 상태에 있는 보험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안정된 보험재정을 통해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이 원칙 없는 질병으로 무병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우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급증하는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 건강검진의 품질을 높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건강위험 계층에 있는 예비환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분리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지급과 심사기능 구조도 한 곳으로 통일하여 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치료 건수를 유발하는 치료비 계산 방식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치료비 격정에 함몰되는 환자화 그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민영보험의 필요성도 줄어들어 사회의 건강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유 수유도 수칙 지켜야 아기에게 해 안된다

아기를 낳은 주부들 중 모유수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기에게 모유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당장 엄마의 불편함이나 고충은 참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잠도 설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 수유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기에게 좋다고 하는 모유수유가 잘못하면 도리어 아기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하는데 엄마들이 이걸 잘 아셨으면 한다.

우선 하나의 사례를 살펴 보면 첫 돌이 지난 아기가 여전히 엄마 젖을 찾는다고 해 보자.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모유를 단칼에 끊지 못하고 그 사이 치어는 계속 자란다.

모유를 먹인 후 이를 뺏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먹이게 된다. 결국 아이의 치어를 상하게 해 충치를 만들게 된다.

3세 이하의 유아는 모유의 특성과 맞은 수유로 인해 입안이 쉽게 산성화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아기에 모유수유를 하거나 과일 등을 먹인 후에는 양치질을 해주거나 보리차나 물로 입안을 헹구주는 게 좋다. 또 모유수유는 자체도 중요하다. 한발 중에도 몇몇 어머니 보편대부분 누운 채로 먹이게 되고, 그러다 피곤한

엄마나 아기가 함께 잠이 들기 일쑤다.

그러나 이것은 앉아서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안 좋다. 자꾸 누워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중이염이 잘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트림을 못 시키기 때문에 간혹 사레가 걸린단거나 더 나아가서는 흡입성 폐렴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아기의 몸과 마음에 모유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자칫 그게 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중요한 수칙을 알고 먹이는 육아상식이 필요하다. ▲항문기·목소리 수감동

<p>光 卍 日 報</p>		<p>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p>	<p>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연말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p>	<p>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500) <F A X 227-9500> 02-773-9331 1부 500원</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